*영어어문교육 16*권 4호 2010년 겨울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와 교사변인 연구

권 선 희
(부산외국어대학교)

Kwon, Sun-Hee. (2010). A study on NNS teachers' needs for the training period in improving their general and 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ts relations with teacher variabl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4), 107-131.**

The goals of the present study are two-fold: 1) to examine NNS teachers' needs for training period in improving their gene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2)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teachers' needs for the training period, and their current levels of general/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other background variables. Data was collected from sevent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N=70) who participated in the six-month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teacher trainees responded to four questionnaires of 1) the self-diagnosis of their current levels of four language skills (L/S/R/W) in both general/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2) the training period required to improve their general/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teaching both English and other subjects through English, 3) the period of their English teaching, and 4) the proportion of their English use in class. The data analysis has shown that there were th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trainee needs for the training period and their teaching period, and the proportion of their English use in class. In terms of trainee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significant relations of both their general/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ir needs for the training period were fou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service English teacher's general and classroom communicative competence/ training period/teacher variables,** 영어교사의사소통능력/연수시간요구도/교사변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서론

Andrews(2001)는 비원어민화자(NNS)인 영어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적합한 의사소통자가 되고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Andrews에 따르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은 크게 세 가지인데, 교사의 언어구사능력 (language proficiency),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subject-matter knowledge), 그리고 교과지식이 적절한 언어를 통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행해지는 교사의 성찰과 계획, 즉 교사의 언어인지력(teacher language awareness)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중 NNS 영어교사의 전문성 계발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가의 문제는 단일한 대답으로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할 수 없고, 교육이론가와 현장실천가의 관점 또한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요구되는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의 질문이 한국의 NNS 영어교사들에게 주어진다면 대다수 교사들의 응답은 언어구사능력향상과 연관된 항목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NNS 교사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TE)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사자신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언급되어 왔다(김승태, 정길정, 2005; 김신혜, 2005; 민찬규, 2006; 이재근, 정은숙, 2006; 임병빈, 전영주, 2009; Lavender, 2002).

한국 NNS 영어교사의 전문성 계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면, 이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충분한 정도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Bachman(1990)은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적절한 문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정의를 차용한다면,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적절한 문맥, 즉 교실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교실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은 일상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능력보다는 전문화, 세분화되고, 내용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Elder, 1993, 2001). 이러한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은 교사의 배경 변인, 요구 및 교실환경에 따라 상이할 것이고, 정부 지원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효율성의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교사가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가 요구하는 연수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수시간 요구도가 교사의 배경변인 및 의사소통능력 진단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I. 연구 배경

NNS 영어교사의 언어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영어교사는 영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의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를 사용해서 (도구) 영어라는 교과(내용)를 가르친다. 도구로서의 영어를 다루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어 자체'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것이고 (knowing language), 내용으로서의 영어를 아는 것은 '언어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knowing about language). 일반적으로 '언어 자체'를 알고 구사할 수 있으면 '언어에 대해' 역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급이 전세계 EFL/ESL 교실에서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원어민 영어교사는 도구로서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내용으로서의 영어를 아는 능력이 비례하여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Arva & Medgyes, 2000; Freeman, Orzulak & Morrissey, 2009). 특히 도구로서의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향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NNS 영어교사들이 TETE 수업을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도구와 내용으로서의 영어를 다루는 능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Andrews(2001, 2003)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강조되는 것 중 한 가지가 교사 언어인지력(TLA)이라고 주장한다. 교사의 언어인지력은 교과내용 지식이 적절한 언어를 통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행해지는, 언어에 대한 교사의 반성과 계획을 의미한다. Andrews는 언어인지력이 교사의 언어구사능력과 교과내용 지식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학습자의 입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발화를 걸러주는(filtered output)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교사의 언어인지력은 다른 두 가지 요소와 항상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어구사능력이 높거나, 혹은 교과내용지식이 높다고 해서 언어인지력도 항상 높은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Andrews가 주장하는 교사 언어인지력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 사용되는 교사의 실천적 언어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연관되며 동시에 초언어적 지식 (metalinguistic knowledge)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순수 언어학적 지식과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Andrews가 주장하는 교사의 언어인지력은 Elder(1993)가 주장하는 교사의 교실 언어능력(classroom competence), 혹은 Douglas(2000)의 교사 영어능력에 대한 설명과도 연관된다. Elder는 NNS 교사의 영어능력은 언어과제 수행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능력은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언어 구사능력보다는 학습자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Elder의 교실 언어능력에 대한 정의는 결국 교사가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언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Elder는 이 능력이 일반언어의사소통 능력과 반드시 정비례해서 발달하지 않음을 교사 언어과제수행 시험의 성적 분포를 조사하여 보여주었다(Elder, 1993).

영어교사의 언어능력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으나 여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TETE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도(김승태, 정길정, 2005; 김신혜, 2005; 임병빈, 전영주, 2009; Kim, 2008) 및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박성수, 배두본, 정길정, 김정렬, 이재근, 2005; 오석진, 2009; Butler, 2004)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조사·언급된 교사들의 언어구사능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영어 능숙도이지 영어수업을 위해 구체화된 언어능력이 차별화되어 연구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연관되어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져야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연수기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일이겠으나 현직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경우 시간적, 물리적 제한 또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석진(2009)은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222명의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숙달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1년 정도의 연수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음(31.1%)을 보여 주었다. 민찬규(2006) 역시 200명의 심화연수를 이수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응답자의 40%가 6개월의 연수기간이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이문복, 김미경과 김혜련(2009)은 전국 419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연수 모형과 관련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65.2%가 6개월 정도의 집중연수시간이 적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연수 후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 시행 및 관리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장경숙(2007)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합숙형 심화연수 재교육을 이수한 영어교사들 중 설문에 응한 518명의 교사들의 41.6%가 연수기관을 통한 재교육 및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기회를 제공받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이문복, 김미경과 김혜련(2009)에서도 응답자의 93.3%가 정기적으로 심화연수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응답했다. 이는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어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와 연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초등, 중등 영어 교사들이 스스로 진단하는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1]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초등, 중등 영어 교사들이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하는 연수시간 요구도는 어떤 정도인가?
3. 초등, 중등 영어 교사들이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하는 연수시간 요구도는 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진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초등, 중등 영어 교사들이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하는 연수시간 요구도는 교사의 영어교육경력 및 영어사용정도의 배경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A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학부기술부 및 B교육청 주관 6개월 과정의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70명의 현직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이다. 참여 연수교사 중 24명의 초등교사는 과거 영어전담교사의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영어전담교사로 일할 교사들이 상당수이며, 일부 교사들은 과학이나 수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내용중심학습법의 현장 적용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46명의 중등교사 연수생들은 모두 영어 교사이며 이들의 영어 교사 경력은 5년 이하부터 20년 이상까지의 다양했다. 연수교사들은 5개월간의 국내 연수와 1개월간의 해외 연수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총 700시간 정도의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국내 연수가 시작되는 시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교사들의 연령, 성별, 경력 등의 정보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1] '교실의사소통능력'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의미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조하여 쓰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는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보다는 범위가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교실의사소통능력은 교사가 영어수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및 수업수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포함하는 교사의 실행 지식을 의미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연구 참여교사 인적사항

구분	문항					합계
성별	남 17 (24%)	여 53 (76%)				70 (100%)
연령	20대 8 (11%)	30대 27 (39%)	40대 30 (43%)	50대 5 (7%)		70 (100%)
교직경력	5년이하 5 (7%)	6-10년 22 (31%)	11-15년 15 (21%)	16-20년 14 (20%)	21년이상 14 (20%)	70 (100%)
영어관련 연수유무	직무 59 (39%)	심화 28 (19%)	자격 35 (23%)	해외 15 (10%)	기타 14 (9%)	151 (100%)

*영어 관련 연수 항목은 중복 선택 가능

2. 연구 자료 수집

1) 영어교육 경력 조사 및 영어사용 정도 조사

연수시간 요구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교사의 배경변인으로서 연수생들의 영어교육 경력 및 수업시간에 영어사용 정도를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영어교육 경력을 교직경력과 구분해서 조사한 이유는 초등교사의 경우 교직경력과 영어교육경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영어교육경력은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그리고 21-30년 총 5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한 정도는 일주일 단위 수업시수로 계산시 총 몇%정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0-5%, 6-20%, 21-40%, 41-60%, 61-80%, 81-100%의 총 6개 항목이 설문에서 제시되었다[2].

2) 연수교사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가진단

연수생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가진단은 두 가지 언어사용능력, 즉 일반영어의사소통능력과 교실영어의사소통능력에 대해 각기 이루어졌으며 각 언어능력은 다시 4 가지 하위 기술(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진단 도구는 영어학습자들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각각의 분야에 대한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문항들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 진단 도구들 중 세 유형(American Council on Teaching Foreign Languages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 Common European Framework

[2] 영어사용 정도에서 0-5%와 5%-20%를 분리하여 조사한 것은 수업시간에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0-5%의 정도를 구분하고자 함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EF))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연수생 자가진단을 위한 진단지는 4 가지 언어기술들에 대한 연수생 본인의 현재 수준에 대해 제시된 1-6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 중간을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단계들 사이에 제시되어 있는 중간 단계(mid-level)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진단지는 언어기술, 단계, 형식은 동일하나 각 단계에 대한 정의는 두 언어사용능력 각각에 상응하게 되어 있다. 연수교사들은 진단 도구 사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들었으며, 연수 프로그램 20 주차에 걸쳐 진단이 실시되었다.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을 위한 설문도구, 시기 및 영역이 표 2 에서 제시되고 있다.

3) 연수시간 요구도 조사

연수시간에 대한 연수생 요구도 조사는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수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시간을 조사하였다. 설문에서 질문된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은 '90%이상 영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 하는 것과 '90%이상 영어로 타교과목 수업' 진행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수업 진행에 대해, 두 가지 의사소통능력 즉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연수시간을 조사하였다. 연수시간 산출은 심화 연수에서 1일 7시간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여 5주(180시간), 3개월(400시간), 6개월(700시간), 12개월(1400시간)으로 하였고, 그 외 1400시간 이상 기타와 연수시간과 상관없이 거의 불가능, 총 6개 항목을 연수시간 요구도 설문에서 제시하였다. 연수시간 요구도 조사에 대한 설문도구, 시기 및 영역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3].

표 2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와 연수시간 요구도에 대한 설문 도구, 시기, 및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			연수시간 요구도		
	도구	시기	영역	도구	시기	영역
일반의사 소통능력	진단지	20주차	4가지 하위영역 (LRSW) 능력진단	설문지	20주차	2가지 수업형태 연수시간에 요구도 조사
교실의사 소통능력	진단지	20주차	4가지 하위영역 (LRSW) 능력진단	설문지	20주차	2가지 수업형태 연수시간 요구도 조사

[3]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사용된 의사소통능력 진단지와 연수시간 요구도 설문의 제시는 지면상 생략한다. 의사소통능력진단지는 권선희(2010) 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영어교육 경력 및 영어사용 정도

영어교육 경력 및 영어사용 정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가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영어교육경력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준 항목은 0-5 년과 6-10 년으로 두 항목 모두 전체 항목에서 각 31.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어교육경력이 10 년 이하인 교사들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을 가진 연수생도 11 명으로 전체 15.7%를 차지한다. 영어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25 명의 응답자가 수업시간에 10%미만의 영어를 사용한다고 밝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고, 21%이상 40%미만이 17 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여준다.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61%이상인 응답자는 10 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는데 그쳐 전체 집단의 수업시간 영어사용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영어교육경력과 영어사용 정도의 빈도분석

영어교육경력			영어사용정도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0-5년	22	31.4	0-5%	25	35.7
6-10년	22	31.4	6-20%	5	7.1
11-15년	6	8.6	21-40%	17	24.3
16-20년	9	12.9	41-60%	13	18.6
21-30년	11	15.7	61-80%	8	11.4
			81-100%	2	2.9
전체	70	100	전체	70	100

2. 의사소통능력 자기진단도

연수 교사들이 인식하는 현재 본인의 언어 능력 수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두 언어 능력,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수생 자가진단 결과를 분석하였다. 초등과 중등 집단으로 분리되어 제시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는데, 초등 집단은 일반의사소통능력의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현재 수준이 전반적으로 단계 2와 단계 3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중등은 단계 3과 단계 4의 범위에 있다. 교실의사소통능력에서는 초등 집단은 단계 3이상, 중등 집단은 단계 3과 단계 4의 범위로 본인의 능력을 진단했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네 기술에 대한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력의 차이를 대응표본검증으로 조사해 본 결과, 초등 집단은 말하기 기술에서, 중등 집단은 네 가지 기술 모두, 자신의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실력간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초등 집단의 말하기 기술과 중등 집단의 네 가지 모든 기술에서 교실의사소통능력이 일반의사소통능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단계에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이 이루어진 시기(20주차)에, 연수 교사들이 본인의 교실의사소통능력이 일반의사소통능력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 결과

현재수준 (CL)		초등				중등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일반의사소통 능력	M	2.88	3.36	2.86	3.06	3.63	4.31	3.65	3.70
	SD	.61	.87	.72	.82	.83	.70	.77	.82
교실의사소통 능력	M	3.13	3.45	3.15	3.19	4.04	4.50	3.81	3.82
	SD	.83	1.04	.85	.86	.87	.83	.89	.84
t		-2.049	-.940	-2.418	-1.447	-6.330	-2.358	-2.094	-2.207
유의도		.053	.358	.024	.162	.000	.023	.042	.032

3. 연수시간 요구도

연수생들의 연수시간 요구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표 5)를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준 항목은 1400 시간(36.8%)과 1400 시간 이상 기타(31.4%) 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집단별, 언어능력별, 교과별 분석에서 걸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에서는 1400 시간 (초등)과 1400 시간 이상 기타(중등)이 각 42.4%, 39.4%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고, 언어능력별, 교과별 분석에서 모두 1400 시간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수생들이 전반적으로 1400 시간 정도, 즉 1 년 정도의 집중적인 연수를 받으면 영어로 영어 수업 진행 및 타교과 수업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연수시간 1400시간 이상 기타에 대한 경우를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1400시간 이상 기타에 대한 경우, 전체 응답의 50%가 2년이라는 기간에 해당되었다. 즉 연수시간이 1400시간 이상(1년) 요구된다고 응답한 연수생들의 절반이 적어도 2년의 집중적인 연수기간이 주어져야,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거나 영어로 타교과목을 진행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5

연수시간 요구도 빈도 분석

			연수시간						
			180 시간	400 시간	700 시간	1400 시간	1400 시간이상 기타	거의 불가능	합계
집단별	초등집단	빈도	5	11	22	39	14	1	92
		%	5.4	12.0	23.9	42.4	15.2	1.1	100
	중등집단	빈도	2	5	20	64	74	23	188
		%	1.1	2.7	10.6	34	39.4	12.2	100
능력별	일반의사 소통능력	빈도	0	3	10	55	54	18	140
		%	0	2.1	7.1	39.3	38.6	12.9	100
	교실의사 소통능력	빈도	7	13	32	48	34	6	140
		%	5	9.3	22.9	34.3	24.3	4.3	100
교과별	영어로 영어 수업진행	빈도	6	9	25	54	41	5	140
		%	4.3	6.4	17.9	38.6	29.3	3.6	100
	영어로 타교과 수업진행	빈도	1	7	17	49	47	19	140
		%	0.7	5.0	12.1	35.0	33.6	13.6	100
전체		빈도	7	16	42	103	88	24	280
		%	2.5	5.7	15.0	36.8	31.4	8.6	100

표 6

연수시간 1400시간이상 기타 항목 빈도 분석

			연수시간 1400시간 이상 기타						
			1.5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상	합계
집단별	초등집단	빈도	2	9	2	0	0	1	14
		%	14.3	64.3	14.3	0	0	7.1	100
	중등집단	빈도	2	34	17	7	7	5	72
		%	2.8	47.2	23.6	9.7	9.7	6.9	100
능력별	일반의사 소통능력	빈도	2	24	14	4	6	3	53
		%	3.8	45.3	26.4	7.5	11.3	5.7	100
	교실의사 소통능력	빈도	2	19	5	3	1	3	33
		%	6.1	57.6	15.2	9.1	3.0	9.1	100
교과별	영어로 영어수업진행	빈도	2	24	7	2	1	4	40
		%	5	60	17.5	5	2.5	10	100
	영어로타교과 수업진행	빈도	2	19	12	5	6	2	46
		%	4.3	41.3	26.1	10.9	13	4.3	100
전체		빈도	4	43	19	7	7	6	86
		%	4.7	50	22.1	8.1	8.1	7	1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과 표 8은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의 능력별, 교과별 연수시간 요구도에 대한 통계 결과를 비교분석 한 것이다. 표 7에서 수업의 90% 이상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하겠는가의 질문에 초등 집단은 평균 3.21, 중등 집단은 평균 2.38의 결과가 나왔다. 즉 초등 집단은 평균 적어도 700시간 이상 1400시간 이하, 중등 집단은 평균 적어도 1400시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수시간에 대한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0)으로 나타났다. 수업의 90%이상 영어를 사용해서 타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하겠는가의 질문에는 초등 집단은 평균 2.65, 중등 집단은 평균 2.10의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 모두 적어도 140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초등 집단이 중등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교과목 수업에 대한 연수기간에 대해서도 두 집단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9)으로 나타났다.

표 7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집단 비교

어느 정도 기간의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를 받으면 아래 사항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의 90% 이상 영어로 영어과목을 가르침				수업의 90% 이상 영어로 타교과목을 가르침			
	M	SD	t	Sig	M	SD	t	Sig
초등집단 (N=24)	3.21	.850	16.24	.000	2.65	.647	7.16	.009
중등집단 (N=46)	2.38	.795			2.10	.865		
평균	2.65	.899			2.28	.836		

*Note: 1=거의 불가능, 2=1400시간이상 기타, 3=1400시간, 4=700시간, 5=400시간, 6=180시간

표 8은 수업의 90% 이상 영어를 사용해서 영어교과목 혹은 타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하겠는가의 질문에 대한 통계 결과이다. 영어교과목 수업에 대해서는 초등 집단은 평균 4.30, 중등 집단은 평균 3.08의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초등 집단은 평균 400시간 이상 700시간 이하의 연수시간에, 중등 집단은 평균 1400시간 정도의 시간에 가장 많은 표기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타교과목 수업에 대해서 초등 집단은 평균 4.00, 즉 700시간에, 중등 집단은 평균 2.76, 즉 적어도 140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표기하였다. 영어교과목과 타교과목 수업에 대한 두 집단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8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집단 비교

어느 정도 기간의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를 받으면 아래 사항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의 90% 이상 영어로 영어과목을 가르침				수업의 90% 이상 영어로 타교과목을 가르침			
	M	SD	t	Sig	M	SD	t	Sig
초등집단 (N=24)	4.30	1.18	21.52	.000	4.00	1.12	15.50	.000
중등집단 (N=46)	3.08	.951			2.76	1.18		
평균	3.48	1.17			3.17	1.29		

표 9는 각 집단의 영어-영어 및 영어-타교과목 수업에 대한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별 연수시간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영어-영어 유형이든 영어-타교과목 유형이든,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보다는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평균수치가 높고(시간이 적고), 두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에 대한 차이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표 9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의 연수시간 요구도 집단 비교

		연수시간					
		일반의사 소통능력		교실의사 소통능력		유의도	
		M	SD	M	SD	t	Sig
초등집단 (N=24)	영어-영어	3.21	.850	4.30	1.184	6.14	.000
	영어-타교과	2.65	.647	3.69	.926	5.70	.000
중등집단 (N=46)	영어-영어	2.38	.795	3.08	.951	6.98	.000
	영어-타교과	2.10	.865	2.63	1.111	5.30	.000

*Note: 영어-영어: 영어로 영어교과목 수업 진행, 영어-타교과: 영어로 타교과목 수업

표 10은 각 집단의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어-영어 및 영어-타교과목 수업별 연수시간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역시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일반의사소통능력이든 교실의사소통능력이든, 영어-영어 수업에 대한 연수시간보다는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연수시간의 평균이 낮고(시간이 많고), 두 수업 유형 진행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0
영어-영어와 영어-타교과 수업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집단 비교

		연수시간					
		영어-영어		영어-타교과		유의도	
		M	SD	M	SD	t	Sig
초등집단 (N=24)	일반의사	3.21	.850	2.65	.647	3.44	.000
	교실의사	4.30	1.184	3.69	.926	4.44	.000
중등집단 (N=46)	일반의사	2.38	.795	2.10	.865	2.37	.022
	교실의사	3.08	.951	2.63	1.111	3.81	.000

4. 영어교육경력, 영어사용정도,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 분석

1) 영어교육경력과 연수시간 요구도 상관관계

연수생들의 연수시간 요구도가 연수생의 영어교육 경력, 영어수업에서 영어사용 정도 및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수생의 영어교육 경력과 교과별(영어-영어/영어-타교과) 및 의사소통능력별(일반의사소통능력/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의 카이자승 검정 결과가 표 11-14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교육 경력이 길수록 영어연수시간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영어교육 경력 구분에 따른 교과별(영어-영어/영어-타교과) 수업 및 의사소통능력별(일반의사소통능력/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4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의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영어교육 경력의 교차분석에서 '1400시간 이상기타' 및 '거의 불가능' 에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0-5년 응답자는 18.2%, 6-10년 응답자는 59%, 11년 이상-30년의 영어교육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81%이다. 즉 영어교육 경력이 높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경력기간에 따른 이러한 연수도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p=.009).

표 12는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영어교육 경력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1400시간' 과 '1400시간 이상 기타,' 그리고 '거의 불가능' 항목에서 영어교육경력이 짧을 수록 연수시간 요구도는 낮으며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연수시간 유의도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 즉 영어교육 경력이 0-5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연수시간은 1400시간, 6-10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연수시간은 1400시간 이상 기타, 11-15년 응답자의 경우 50%가 거의 불가능의 연수시간에 응답하였다. 즉 영어교육 경력이 짧을수록 적은 연수시간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 응답률이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10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18.6%가 연수시간과 상관없이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성취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응답자들이 영어-영어 수업보다 영어-타교과목 수업에 대해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교육 경력	0-5년	0	4.5	27.3	50	18.2	0	22	
	6-10년	0	4.5	0	36.4	54.5	4.5	22	
	11-15년	0	0	0	16.7	50	33.3	6	.009
	16-20년	0	0	0	44.4	55.6	0	9	
	21-30년	0	9.1	0	54.5	18.2	18.2	11	
전체	빈도수	0	3	6	30	26	5	70	
	비율(%)	0	4.3	8.6	42.9	37.1	7.1	100	

표 12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교육 경력	0-5년	0	0	0	68.2	27.3	4.5	22	
	6-10년	0	0	9.1	22.7	45.5	22.7	22	
	11-15년	0	0	0	33.3	16.7	50	6	
	16-20년	0	0	0	0	88.9	11.1	9	.002
	21-30년	0	0	18.2	27.3	27.3	27.3	11	
전체	빈도수	0	0	4	25	28	13	70	
	비율(%)	0	0	5.7	35.7	40	18.6	100	

표 13은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영어교육 경력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21-30년 집단의 54.6%가 1400시간 및 1400시간 이상 기타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0-5년 집단의 27.2%만이 1400시간 및 1400 시간 이상 기타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어교육경력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39)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3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교육 경력	0-5년	13.6	18.2	40.9	22.7	4.5	0	22	
	6-10년	9.1	4.5	18.2	50	18.2	0	22	
	11-15년	0	0	16.7	16.7	66.7	0	6	.039
	16-20년	0	0	22.2	44.4	33.3	0	9	
	21-30년	0	0	27.3	27.3	27.3	0	11	
전체	빈도수	5	5	17	28	15	0	70	
	비율(%)	7.1	7.1	24.3	40	21.4	0	100	

표 14는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영어교육 경력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역시 영어교육 경력이 짧을수록 적은 연수시간에 대한 응답률이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영어교육 경력에 따라 연수시간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7). 주목할 점은 전체 응답자의 28.5%가 700시간 이하의 연수시간으로 타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는 타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에서 5.7%만이 700시간 이하일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비교된다.

표 14

영어교육 경력에 따른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교육 경력	0-5년	0	9.1	36.4	45.5	9.1	0	22	
	6-10년	0	13.6	9.1	40.9	31.8	4.5	22	
	11-15년	0	0	16.7	16.7	33.3	33.3	6	.007
	16-20년	0	0	0	33.3	66.7	0	9	
	21-30년	0	0	36.4	9.1	27.3	27.3	11	
전체	빈도수	0	5	15	24	20	6	70	
	비율(%)	0	7.1	21.4	34.3	28.6	8.6	1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 분석

다음으로는 수업시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에 따른 교과별(영어-영어/영어-타교과) 수업 및 의사소통능력별(일반의사소통능력/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의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의 카이자승 검정 결과, 영어사용 정도에 따라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표 17-1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p=.007, p=.024). 즉 영어로 영어교과목, 혹은 영어로 타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요구되는 연수시간 요구도는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로 영어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다르며, 영어사용 정도는 일반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 요구도(표 15-1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음(p=.163, p=.053)이 나타났다.

표 15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사용 정도	0-5%	0	8	0	44	36	12	25	
	6-20%	0	0	0	60	40	0	5	
	21-40%	0	0	5.9	23.5	58.8	11.8	17	.163
	41-60%	0	0	15.4	53.8	30.8	0	13	
	61-80%	0	12.5	25	62.5	0	0	8	
	81-100%	0	0	50	0	50	0	2	
전체	빈도수	0	3	6	30	26	5	70	
	비율(%)	0	4.3	8.6	42.9	37.1	7.1	100	

아래 표 17-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영어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에서 영어사용 정도에 따라 연수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업에서의 영어사용 정도와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영어 수업이든 영어-타교과목 수업이든, 영어사용 정도가 낮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가 높고 영어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가 낮다. 표 17에서 수업에서 영어사용이 5% 미만인 응답자(25명)가 영어로 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에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연수시간이 1400시간(44%), 그리고 1400시간 이상기타(28%)임에 반해, 영어사용이 61-80%인 응답자(8명)는 700시간(37.5%)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0시간(50%)에 많은 응답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에서도 5% 미만 영어 사용자(25명)가 영어로 타교과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에서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연수시간이 1400시간 이상 기타 임이 비해, 영어사용이 61-80%인 응답자(8명)는 700시간(37.5%)과 400시간(37.5%)에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였다.

표 16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사용 정도	0-5%	0	0	12	28	40	20	25	
	6-20%	0	0	20	40	40	0	5	
	21-40%	0	0	0	17.6	47.1	0	17	.053
	41-60%	0	0	0	30.8	53.8	0	13	
	61-80%	0	0	0	87.5	12.5	0	8	
	81-100%	0	0	0	100	0	0	2	
전체	빈도수	0	0	4	25	28	0	70	
	비율(%)	0	0	5.7	35.7	40	7.1	100	

표 17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사용 정도	0-5%	4	5	20	44	28	0	25	
	6-20%	0	0	20	40	40	0	5	
	21-40%	0	5.9	11.8	52.9	29.4	0	17	.007
	41-60%	0	15.4	38.5	38.5	7.7	0	13	
	61-80%	50	12.5	37.5	0	0	0	8	
	81-100%	0	0	50	50	0	0	2	
전체	빈도수	5	5	17	28	15	0	70	
	비율(%)	7.1	7.1	24.3	40	21.4	0	1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8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영어-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 타교과목 수업을 위한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180 시간 (%)	400 시간 (%)	700 시간 (%)	1400 시간 (%)	1400 이상기타 (%)	거의 불가능 (%)	빈도수	p값
영어사용 정도	0-5%	0	4	28	24	36	8	25	
	6-20%	0	20	20	40	40	0	5	
	21-40%	0	0	0	41.2	35.3	23.5	17	.024
	41-60%	0	0	30.8	46.2	23.1	0	13	
	61-80%	0	37.5	37.5	25	0	0	8	
	81-100%	0	0	50	50	0	0	2	
전체	빈도수	0	5	15	24	20	6	70	
	비율(%)	0	7.1	21.4	34.3	28.6	8.6	100	

3)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 분석

연수생들의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에 대한 교과별(영어-영어/영어-타교과) 수업 및 의사소통능력별(일반의사소통능력/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를 교차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자가진단도가 높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는 낮았다. 그리고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자가진단도에 따라 영어-영어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래 표 19는 연수생들의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를 카이자승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의사소통능력 쓰기를 제외한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교실의사소통능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진단도에 따라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사소통능력 읽기 능력 진단도는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의사소통능력 듣기, 말하기, 쓰기 기술, 교실의사소통능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술은 영어-타교과 수업이나 교실의사소통능력과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4]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의 자가진단도에 대한 교과별(영어-영어/영어-타교과) 수업 및 의사소통능력별(일반의사소통능력/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의 교차분석 전체 결과 제시는 지면 제한상 생략한다. 이 논문에서는 카이검정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의 결과 중 일부만 제시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9

의사소통능력 진단도에 따른 연수시간 요구도 카이검정 결과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영어-타교과		영어-영어		영어-타교과	
N=70		x^2	p	x^2	p	x^2	p	x^2	p
일반의사 소통능력 현재수준 (CL) 진단도	듣기	46.815	.044	22.995	.520	36.553	.265	34.005	.371
	읽기	68.611	.000	27.119	.167	50.655	.005	48.151	.010
	말하기	49.032	.028	29.328	.208	27.742	.682	38.311	.205
	쓰기	38.677	.086	21.820	.410	29.820	.372	32.664	.248
교실의사 소통능력 현재수준 (CL) 진단도	듣기	48.652	.030	32.365	.118	26.120	.758	35.211	.319
	읽기	58.070	.003	23.027	.518	46.671	.045	34.082	.368
	말하기	50.082	.022	22.354	.558	30.981	.518	27.978	.670
	쓰기	44.924	.022	21.844	.409	34.303	.191	29.973	.365

영어로 영어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말하기 기술 자가진단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가 아래 표 20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 20의 결과를 보면 일반의사소통능력 말하기에 대한 자가진단도가 1에서 3까지의 응답자 34명 중 11%가 연수시간에 상관없이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성취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3이상 6까지의 단계에 응답한 36명의 2.7%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실의사소통능력 말하기에 대한 자가진단도 단계 1에서 3까지의 응답자 27명 중 14%가 연수시간에 상관없이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성취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단계 3이상 6까지의 단계에 응답한 43명의 2.3%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일반의사소통능력이든 교살의사소통능력이든, 말하기 자가진단도가 높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는 낮으며,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영어로 영어 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20

말하기 자가진단도에 따른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영어-영어 수업을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기술	영역	진단단계	400시간(%)	700시간(%)	1400시간(%)	1400이상 기타(%)	거의 불가능(%)	빈도	P값
말하기 자가진단도	일반의사소통능력	1	0	0	0	100	0	1	.028
		1.5	0	0	0	100	0	1	
		2	33.3	0	50	16.7	0	6	
		3	0	11.5	50	23.1	15.4	26	
		3.5	33.3	10	40	40	0	10	
		4	0	5.6	50	44.4	0	18	
		4.5	0	0	0	100	0	4	
		5	0	33.3	33.3	33.3	0	3	
		5.5	0	0	0	0	100	1	
	전체	빈도	3	6	30	26	5	70	
		비율(%)	4.3	8.6	42.9	37.1	7.1	100	
	교실의사소통능력	1.5	0	0	0	100	0	1	.022
		2	28.6	0	42.9	28.6	0	7	
		2.5	0	0	0	50	50	2	
		3	0	11.8	58.3	11.8	17.6	17	
		3.5	10	10	20	60	0	10	
		4	0	11.8	52.9	35.3	0	17	
		4.5	0	0	33.3	66.7	0	6	
		5	0	11.2	44.4	44.4	0	9	
		5.5	0	0	0	0	100	1	
	전체	빈도	3	6	30	26	5	70	
		비율(%)	4.3	8.6	42.9	37.1	7.1	100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 참여한 초·중등 교사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 및 연수시간 요구도는 아래와 같이 요약,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초·중등 교사 연수생들은 설문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본인들의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을 보여 주였다. 자가진단 결과, 초등 중등 집단 모두 본인들의 교실의사소통능력이 일반의사소통능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영어교사의 교실의사소통능력이 일반의사소통능력과는 다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속도로 발달될 수 있으며 보다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68.2%가 영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 혹은 영어로 타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 1년, 1400시간의 집중적인 연수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수시간 요구도에 대한 집단별, 의사소통능력별, 그리고 과목별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간 비교에서는 중등 집단이 초등 집단보다 많은 연수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 집단의 57.6%가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 중등 집단의 73.4%가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소통능력별 연수시간 비교에서는 일반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가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수생들의 58.6%가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은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 77.6%가 일반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시간은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과목별 연수시간 비교에서는 교사 연수생들의 67.9%가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 68.6%가 영어 타교과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400시간 혹은 1400시간 이상 기타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목별 연수시간 비교에서 초등집단이든 중등집단이든, 영어로 타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연수시간이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연수시간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은, 교사들이 타교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내용중심학습(content-based instruction) 진행을 위해 장기간의 연수와 준비를 요구한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교사 연수생들의 영어교육경력, 영어사용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는 연수시간 요구도와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경력이 높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가 높으며 영어교육경력과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따라 연수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영어사용 정도가 적을수록 연수시간 요구도가 높으며 영어사용 정도에 따른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자가진단도와 연수시간 요구도 분석에서는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기술에 대한 자가진단도 모두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사소통능력 및 교실의사소통능력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기술의 자가진단도에 따라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반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첫째,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사소통능력과는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점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이 다른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두 능력에 대한 차별화된 연수시간 요구도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분명히 다른 하위요소들이 각각의 영역에 있고 두 언어 능력의 향상은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과 기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 교사 연수생들의 수업시간 중 영어사용 정도가 일반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수시간 요구도 보다는 교실의사소통능력 연수시간 요구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영어교사들의 교실의사소통능력향상에 대한 집중연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어교사들의 교실의사소통능력 향상은 일반적 의미의 의사소통능력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시에 단순한 교실영어 훈련이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습득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영어교사들의 교실의사소통능력은 수업 자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언어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교실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 및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Andrews & McNeil, 2005; Pennington, 2002). 즉 영어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교과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행능력과 아울러 무엇이 학습자들에게 의미있는 학습주제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적 제약이 주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교수 실행지식이 체계적, 전문적으로 계발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심화연수 프로그램에서의 큰 두 가지 목표 축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국내·외 다양한 교과과정 및 교재들의 검토를 통해 연수교사들의 교수배경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을 활용하는 것, 연수교사들의 영어수업 수행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하는 것, 그리고 해외연수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언어연수, 문화체험 위주에서 탈피하여 현지 교실학습 체험의 기회를 늘리고 현지 교사와의 협력 작업의 기회를 늘리는 것 등이 될 수 있겠다.

셋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기간적인 연수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연수생들은 평균 1년간의 집중연수 기간이 영어수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집중연수가 6개월 700시간을 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연수시간 및 추수연수 관리에 있어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고려된다. 여러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유를 고려할 때 6개월 이상의 집중 연수가 불가능하다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연수 후 6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연수 후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현재 6개월 과정의 심화연수를 수행한 교사들의 추수연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교사들이 실제 학교현장에 복귀하였을 때 겪는 업무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수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교사 심화연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영어교사 연수의 효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실현장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의 설계와 실행만큼 연수 후 관리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교사의 수업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시간적, 업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교사의 연수시간 요구도를 영어교육경력, 영어사용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가진단도와 함께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영어교사들의 연수시간 요구도 및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가진단도는 특정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적 자료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향후 다양한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인 연구가 같이 이루어질 때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려된다.

참고문헌

권선희. (2010). 영어교사 일반의사소통능력과 교실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진단 및 인식도 연구. *외국어교육, 17*(2), 205-228.

김승태, 정길정. (2005).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과 제 변인의 고려. *영어교과교육, 4*(2), 27-49.

김신혜. (2005).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영어학연구, 20*(1), 21-47.

민찬규. (2006).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5*(1), 27-45.

박성수, 배두본, 정길정, 김정렬, 이재근. (2005). 초등학교 교사 영어 심화연수 운영계획. *영어교과교육, 4*(2), 1-25.

오석진. (2009). 중등 영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영어어문교육, 15*(1), 203-228.

이문복, 김미경, 김혜련. (2009). 초등영어 맞춤형 심화연수 모형 개발 연구. *초등영어교육, 15*(3), 5-35.

이재근, 정은숙. (2006). 초등 영어 장기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분석 (I). *영어영문학 연구, 48*(4), 293-324.

임병빈,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장경숙. (2007).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 평가. *외국어교육, 14*(3), 257-282.

Andrews, S. (2001). Language awareness of the L2 teacher: Its impact upon pedagogical practice. *Language Awareness, 10*, 75-90.

Andrews, S. (2003). Teacher language awareness and the professional knowledge base of the L2 teacher. *Language Awareness, 12*, 81-95.

Andrews, S., & McNeil, A. (2005).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good language teacher.' In M. Bartels (Ed.),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159-178). New York: Springer.

Arva, V., & Medgyes, P. (2000). Native and non-native teachers in the classroom. *System, 28*, 355-372.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utler, G. (2004). What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 to attain to teach EFL? *TESOL Quarterly, 38,* 245-278.

Douglas, D. (2000). *Assessing 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der, C. (1993). How do subject specialists construe classroom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Testing, 10*, 235-254.

Elder, C. (2001). Assessing the language proficiency of teachers: Are there any border controls? *Language Testing, 18*, 149-170.

Freeman, D., Orzulak, M., & Morrissey, C. (2009). Assessment in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In A. Burns & J. Richards (Eds.),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77-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S.-Y. (2008). Five years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Responses from teachers and prospects for learners. *English Teaching, 63*(1), 51-70.

Lavender, S. (2002). Towards a framework for language improvement within short in-service teacher development programmes. In H. Trappes-Lomax & G. Ferguson (Eds.), *Language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237-250).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ennington, C. M. (2002). Examining classroom discourse frames: An approach to raising language teachers' awareness and planning for language use. In H. Trappes-Lomax & G. Ferguson (Eds.), *Language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149-172). Philadelphia: John Benjamin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권선희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석포로15, 608-738
Tel: 051-640-3050
Email: skwon@pufs.ac.kr

Received in October 13, 2010
Reviewed in November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15, 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